

“친구야, 걱정 마.
내가 구해줄게”...
열네 살 소년,
세상을 울리다



영남일보

강승규 기자



박건하 군이 생전에 다녔던 중학교 전경. 사고가 발생한 저수지 인근에 자리한 이 학교는, 교정을 감싼 안전망 너머로 아파트 단지과 본관 건물이 보인다.

흔히 기자는 사건을 쓰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기자는 사람을 쓰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사진 너머의 마음, 이름, 표정,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을 써 내려가는 동안 내가 마주하게 되는 건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있었는가’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장 아프게, 가장 진심으로 확인하게 만든 소년이 있었다. 대구 달성군 한 중학교에 다녔던 13살 고(故) 박건하군이다. 그 이름 석 자가 내 글쓰기의 방향을 바꿔 놓았다.

2025년 1월13일 월요일 저녁, 평소처럼 조용한 사무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속보 알람을 기다리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중학생이 저수지에서 익사 했대요. 얼음이

녹아서 그랬는지. 단순 사고 같긴 한데, 혹시 알아보실 수 있나요?”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저수지. 녹은 얼음, 실족, 구조 실패. 익숙한 겨울 사고였다. 나는 곧바로 관할 소방서 등에 사실 확인을 하고, 단신 기사(단독)로 정리해 온라인에 송고했다. ‘중학생, 저수지서 숨져…겨울철 안전사고 주의’. 한두 문장의 속보. 그날의 일은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다시 전화기가 울렸다. 이번에는 단호하면서도 다급한 목소리였다. “기자님, 혹시 들으셨어요? 개가 친구들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셋을 건졌대요. 낚싯대로…”

그 말에 내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다.

“친구야 걱정마, 구해줄게”...열네살 소년 세상을 올렸다

달성군 저수지 비극의 날

빙판 깨져 친구들 물에 빠져자
주저없이 다가가 4명 살리고
마지막 남은 친구 구하다 참변
소년의 용기 반드시 기억해야

친 공기를 뚫고 달려오던 열 네살 소년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어디로 갔을까. 14일 오후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저수지, 사리가 가득 내려앉았다. 전날 밤이던 비극을 기억하려는 걸까, 마지막 순간 소년이 거꾸로 떨어진 손들이 차갑게 부서진 얼음 조각처럼 물 위에 떠 있다. 물속엔 도로와 친구를 구하기 위해 가까이 자신을 희생한 소년의 마지막 손이 어른거린다. 소년의 친구들과 경찰의 말을 종합해 당시 상황을 돌아본다. 소년의 용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해서다.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다사읍 학교는 다르지만 동네 친구들 무리만큼 우정을 쌓던 중학생 11명은 이날도 어느 때처럼 저수지로 향했다.



14일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저수지. 얼음이 깨진 채 물이 드러난 저수지 모습이 비극적 사건의 흔적을 보여주는 듯하다. 주변에는 나뭇가지와 얼음 조각들이 흩어져 있으며, 차가운 햇빛이 얼음 위로 반사되고 있다.

매년 겨울이 되면 공판 열여덟이 저수지는 아이들엔 최고의 놀이터였다. 이날도 친구들은 오전 내내 얼음 위에서 신나게 미끄럼을 타며 놀았다.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다.

오후 4시 56분쯤 아이들은 다시 저수지로 갔다. 갓난아이와 얼음 위를 마구 달렸다. 순간 갑자기 “헉!” 소리가 나더니 얼음이 아이들 조각으로 갈라졌다.

아이들은 순간 멈춰섰지만, 이미 6명이 물속에 빠져 허우적댔다. 한계를 몰랐던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가웠다. 소년들은 당황했다. 반사적으로 얼음 가장자리로 손을 뻗었지만 부서진 얼음은 몸을 제대로 지탱해 주지 못했다.

급기는 소리만 계속될 뿐. 다행히 A(중1)군이 먼저 빠져 나왔다. 하지만 그의 눈은 물속의 친구들에게서 뗄 수 없었다.

“거기 있어! 내가 구해줄게!” 곧바로 친구들을 향해 다가갔다. 미끄러운 얼음을 엉겁결에 기다시피 하며 불쑥으로 손을 내밀었다. 가까운 친구부터 힘껏 잡아당겨 얼음 위로 끌어 올렸다.

“괜찮아! 걱정마! 나도 나갈 수 있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젖은 손으로 얼음을 부여잡은 친구들은 간신히 물 밖으로 나왔다. A군은 조금씩 지쳐갔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손을 거두지

않았다. “한 명만 다...” A군은 물속에 남아 있던 마지막 친구에게 손을 뻗었다. 상황이 여의지 않아 근처에 있던 낚시대를 들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애초에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얼음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갈라졌다.

차가운 물속은 그의 몸을 순식간에 삼켰다. A군은 물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낚시대를 내밀었다.

친구는 손을 뻗었고, 거의 닿을 뻔했지만 그 순간 A군이 물속으로 빠졌다.

오후 6시쯤 A군 부모가 한길읍에 저수지로 달려왔다.

이미 구조대가 도착해 작업 중이 있지만, 물속에서 아이를 찾을 수 없다고 하자 부모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는 얼음 막고 흐느꼈고, 아버지는 한동안 불가를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구조 작업은 1시간20분 뒤 마무리됐다.

혹시나 했지만 A군은 숨진 채 발견됐다.

순간 현장엔 두꺼운 침묵이 흘렀다. 저수지는 조용히 얼어붙었다.

주민들은 A군의 “진정한 용감”이라 불렀다.

부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수지를 떠났다. 눈에는 눈물이 한가득 고인 채, 주민들도 A군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았다며 추모의 꽃을 길고 띄웠다. 그리고...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야.” 소년이 운다. 글: 서민-영남구기자 kang@yeonnam.com

영남일보는 이를 바탕으로 박 군의 의로운 희생을 조명하는 기사를 작성했고, 2025년 1월15일자 1면에 게재됐다.

열네 살의 아이가 친구들을 구하다 숨졌다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반드시 기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둘러 차에 올랐다.

다사읍 서재리 저수지로 향하는 동안, 나는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지금 써야 한다. 지금 아니면, 세상은 그 아이를 그냥 익사 사고로만 기억할 거야. 현장은 고요했다. 어둠이 천천히 세상을 덮고 있었고, 얼음은 다시 얇게 얼어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엔 묵직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도로 옆에는 여전히 경찰차, 구급차, 소방 지휘 차량이 남아 있었고, 주민 몇몇은 두 손에 핫팩을 쥔 채 말없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마을회관에서 나온 듯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연신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저수지만 바라보고 있었다.

저수지 가장자리엔 소년의 것으로 보이는 운동화 한 켤레와 젖은 옷가지들이 흙바닥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현장의 풍경은 익숙했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분명 달랐다. 동네 사람들의 표정은 단순한 사고 현장에서 흔히 마주치는 경직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었다. 그건 기자에게 말하지 않아도 들려오는 사인 같았다. 이야기가 있다.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신호다.

나는 차에서 카메라와 메모지를 챙겨 나왔다. 주변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지



사건 관계자의 증언을 듣기 위해 다수의 언론사 취재진이 한 민가 앞에 모였다. 카메라 셔터음과 마이크가 교차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기자들은 한마디의 진실도 놓치지 않으려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날 취재는 박건하 군의 의로운 희생과 관련한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만, 그보다 먼저 드리운 건 어떤 깊은 침묵이었다. 저수지 옆 바위에는 국화꽃 몇 송이와 손글씨로 눌러쓴 편지들이 조심스레 놓여 있었다. “친구야 고마워. 하늘에서도 우리 지켜줘” 한 장의 편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조용히 말을 걸어왔다. 그리고 그 곁엔 낡은 낚싯대 하나가 외롭게 기대어 있었다. 마치 그날의 시간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누구도 손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메모지도, 녹음기도 꺼낼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기자가 아니었다. 사람을 마주한 사람으로서, 처음 맞닥뜨린 경의의 순간이었다. 눈앞의 고요함이 내 안의 모든 언어를 잠재웠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기적이었다. 건하 군은 저수지에서 친구셋을 구조했다. 낚싯대로, 맨몸으로, 차디찬 물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며. 마지막 친구를 꺼낸 뒤, 그는 안도의 얼굴로 물속에 사라졌다고 했다.

구조된 친구들의 증언은 차마 들을 수 없을 만큼 진실했고, 잊을 수 없을 만큼 뭉클했다. 떨리는 목소리, 멈추지 않는 눈물, 그리고 반복되는 한 문장. “건하가 없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건하가 계속 괜찮다고 말했어요. 나만 남았다고…꼭 나가라고 했어요.”

나는 함께 있었던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겨울 저녁의 찬 공기처럼, 그들의 말문도 무거웠



사고 이튿날인 2025년 1월14일 촬영된 저수지의 모습으로, 깨진 얼음과 어지럽게 흩어진 나뭇가지, 얇게 얼어붙은 수면이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전한다. 이곳에서 열네 살 박건하 군은 얼음물에 빠진 친구들을 차례로 구조한 끝에 목숨을 잃었다.

지만 진심은 금세 전해졌다. “맞아요, 그 아이가 먼저 뛰어들었어요. 어른도 못 들어가던데,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나온 다음에 다시 들어갔어요. 세 번째 친구 구하러...” “그 낚싯대요. 그걸로 먼저 친구들 끄집어내고, 마지막엔 그냥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관할 지구대 경찰관도,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도 조심스럽게 사실을 확인해줬다. “사실 처음엔 단순 익사 사고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아이들의 진술이 하나둘 이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날이 너무 추워서 진입 자체가 위험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셋이나

건졌다는 건...말이 안 되는 일이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수소문 끝에 구조 영웅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달성군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박건하. 짧은 시간 안에 나는 그 이름 석 자와 마주했다. 그 순간, ‘기록’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가슴을 눌러왔다. 이걸 단지 기사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한 줄의 리드로 요약할 수 있는 뉴스가 아니었다. 이걸, 누군가의 생에 대해 써야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자라는 이유로 내가 쓰지 않으면 아무도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이 되었다.



친구들을 구하다 숨진 박건하 군의 장례식장 입구. 조화를 보낸 기관명과 조기들이 복도에 나란히 놓인 가운데, 조문객이 조용히 빈소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영정 앞에선 수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였고, 교직자와 지역사회, 시민들은 박 군의 용기를 기리며 의로운 희생을 함께 추모했다.

아이들의 말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었다. 그건 살아 있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송별사였고, 남겨진 이들이 마음 깊이 품은 감사이자, 슬픔이었다. 어떤 질문도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들었다. 그리고 울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생각했다. 건하 군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누군가는 말한다. 본능이었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분명한 선택이었다. 차디찬 물속, 무너지는 얼음 위에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뛰어들었고, 손을 내밀었고, 마지막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것은 본능이 아니라 의지였다. 사랑이었고, 책임이었다. 함께 자라온 친구들과의 웃음, 눈을 맞추며 나눴던 비밀, 언젠가 꼭 지키자고 약속했던 꿈. 그

는 그 모든 것을 그날 지키고자 했다.

열세 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무거운 책임이었지만, 건하 군은 끝까지 그 책임을 놓지 않았다. 부모는 취재를 우회적으로 정중히 거절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됐다. 오히려 그 침묵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세상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은 곧 나의 다짐이 되었다.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대신 써야 하는 것이 기자의 몫이라면, 나는 그 역할을 끝까지 놓지 않기로 했다.

다음날, <“친구야, 걱정 마. 내가 구



박건하 군이 얼음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조하던 중 숨진 이 저수지는 현재 고요한 숲속 산책길로 둘러싸여 있다. 사건 이후에도 이곳을 찾는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저수지를 바라보며 참혹했던 사고 현장을 되새기고 있다. 평온한 자연 풍경 뒤로, 열네 살 소년의 용기와 희생이 깊이 새겨진 공간이다.

해줄게”...열네 살 소년, 세상을 올리다>
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를 냈다. 8매 분
량의 기사였지만, 파장은 컸다. SNS에
는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 “그 아이는
진짜 어른이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해시태그 #14세영웅 #잊지않겠습니다’
가 빠르게 퍼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판에는 수백 건의 글이 올라왔다. “제 아
들도 중학생입니다. 기자님, 부디 이 아이
를 잊지 말게 해주세요” 그날, 나는 ‘기
자는 진심을 쓸 수 있는 마지막 직업’ 이
라는 말을 처음 온몸으로 이해했다. 그
리고 넉 달 뒤, 2025년 5월16일, 보건복
지부는 박건하 군을 ‘의사자’로 지정했
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숨진 이에게 국
가가 내리는 최고의 예우. 그 영광을, 열

세 살의 아이가 받았다. 그 소식이 전해진
날, 나는 책상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
다. 그리고 처음 기사 원고를 썼던 키보드
위에 천천히 손을 올렸다. 박건하라는 이
름이 국가를 움직였고, 도시를 바꾸었고,
제도를 일으켜 세웠다.

대구시는 ‘의로운 시민 예우 조례’를
개정했다. 이제 의사자로 지정된 시민은
자동으로 ‘의로운 시민’으로 예우를 받
는다. 달성군은 별도 보상 조례를 만들어
유족에게 예우금과 특별 보상금을 지급하
기로 했다. 그 조항은 ‘박건하 군의 이름
으로’ 시작 됐다. 한 아이의 죽음이 도시
의 기준을 바꾼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
아이의 이름을 쓸 때마다 조심스럽다. 그



영남일보 강승규 기자

이름 석 자를 쓰기 전, 책상 앞에서 두 번은 숨을 고른다. 내가 지금 쓰는 이 글이 그를 온전히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쓰는 말들이, 그를 지켜낼 수 있을까. 나는 그를 쓰고 있지만, 실은 내가 그에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내 글을 바꾸었고, 나를 바꾸었고, 세상을 바꾸었다.

나는 기자다. 하지만 그 아이 앞에서는, 그저 사람이고 싶다. 나는 그를 취재했지만, 사실은 그에게 배웠다. 용기란 무엇인지, 글쓰기란 어떤 책임인지, 사람을 기록한다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 그 모든 것을 나는 박건하라는 이름에게 배웠다. 세상은 묻는다. 영웅이란 누구인

가. 나는 조용히 대답한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 아이. 말없이, 그러나 끝까지 손을 내밀던 아이. 그 손끝으로 기적을 만든 아이. 그 이름은, 박건하다. 그날 저수지에서, 그는 마지막 친구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너만 남았잖아” 그 말은 물속에서 들려온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돼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이 글의 시작이자, 마지막 이유다. 기자가 기억하지 않으면, 세상은 금방 잊는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썼다. 잊지 않기 위해, 잊히지 않도록. 살아 있는 누군가의 기억을, 문장으로 묶어 세상 앞에 꺼내 놓기 위해. 나는 다짐한다. 이 아이를, 그리고 이 아이가 남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내 글이 닿는 곳마다, 그 이름을 전하겠다고.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이름. 박건하. ♡

영남일보 강승규 기자